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은 같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슬람의 하나님 알라(Allah)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Jehovah)

칼럼니스트며 기독교 변증가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Dr. Michael Brown)가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같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Of Course Muslims and Christians Don't Worship the Same God)라는 최근 칼럼에서 무슬림의 알라(Allah)와 기독교의 여호와(Jehovah) 하나님이 다른 이유를 5가지로 제시했다.

1. 여호와와는 '하늘 아버지' 그러나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다.

무슬림들에게 알라(Allah)는 '아바' 혹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마 6:9-13)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아바'(אבא)라고 부르나(롬 8:15, 갈 4:6), 이슬람의 무슬림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이슬람 신학에서 알라(Allah)의 이름이 무려 99개나 되지만 '아버지'라는 개념은 없다.

2. 여호와와는 성도와 '교제'하는 친구가 되지만 알라는 아니다.

무슬림에게 알라(Allah)는 초월적 존재로 경배와 송축 그리고 복종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다.(사 41:8, 요 15:14) 그러나 무슬림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다. 무슬림들은 아랍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아랍어 기도

문을 주문처럼 암송하며 오직 알라(Allah)의 신성(神性)만을 강조한다.

3. 무슬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하는데 그 때 "알라는 단 한 분이다. 알라는 영원하시다. 성자와 성부를 두지 않는다. 그 분과 동등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꾸란(Quran)을 암송한다. 이는 무함마드의 다신교 신앙이 무슬림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또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결국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그들의 기도 때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4. 무슬림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본다.

무슬림들도 예수를 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많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같이"(요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요 14:11),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 "그 본체의 형상"(히 1:3) 등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참 사람이시요 또한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

5. 무슬림들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다.

꾸란(Quran)에 이런 구절이 있다.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믿는 자는 알라(Allah)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진리로부터 멀어져 속임을 당하는 것이다."(수라 9:30)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믿는 것'(롬 10:9,10)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지만 무슬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라."고 한다면 알라(Allah)의 저주를 받기 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할 것이다.

무슬림들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Allah)는 같은 하나님이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다 같이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슬람의 '알라'(Allah)와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르다.(*) 출처 / 크리스천포스트